

완주군, 상반기 85개 아파트 르네상스 사업 선정

아파트 공동체 복원한다

5개 유형 50만원~500만원... 공동체 미디어 1개 2000만원 지원 등

올해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85개의 주민주도 공동체 사업이 추진된다.

27일 완주군이 2017년 상반기 아파트 르네상스 사업 85개를 군 홈페이지를 통해 선정·발표했다.

아파트 르네상스 사업은 아파트공동체 활성화 사업으로, 완주군 전체 거주 형태의 4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아파트 주민들이 대상이다.

올해 추진되는 사업은 △아파트형(1개 단지 아파트 전체 주민화합 모임) △동아리형(1개 단지 내 주민 프로그램 모임) △연합 동아리형(2단지 이상 주민 프로그램 모임)이다.

또한 △단지 연합형(2단지 이상 주민간 마을행사 모임) △아웃사촌형(라인 및 동별 모임) 등 5개 유형으로 다양화했으며, 지원금액은 50만원에서 500만원까지다.

공동체 활동의 중심이자 다양한 공동체 활동을 가능토록 5개의 커뮤니티 공간 조성을 위해 최대 2500만원까지 지원한다.

특히 이번 공모에는 새롭게 공동체 활동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공동체 미디어 1개 사업을 선정해 2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미디어 사업의 주요 내용은 현장 활동가를 양성해 공동체 활동을 취재해

소식지를 발간하고 공동체의 재능을 지역에 나누도록 공동체와 공동체, 공동체와 지역을 연계하는 연결고리 역할도 하게 된다.

박성일 군수는 "올해는 지난해보다 많은 공동체가 구성돼 주민 간 소통하고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아파트 공동체 복원을 통해 주민들이 행복해 지고, 공동체에서 배운 재능을 지역사회에 나누고 환원하는 따뜻한 행복해 르네상스 완주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오는 7월 하반기 아파트 르네상스 사업을 2차 공모할 계획이 다. /원주=이종복 기자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지원 신청

장수군, 3월 31일까지 접수

장수군에서는 여성농업인의 건강관리와 문화·학습활동을 지원하는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지원 사업 2차신청」을 오는 3월 31일까지 신청 받고 있다고 밝혔다.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지원사업은 여성농업인들의 만성질환 예방 및 치료와 함께 문화적 여건이 열악한 여성농업인에게 문화 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6년 한 해 동안 525명에게 총 6천여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했다.

영성농업인 지원자격은 실제 영농에 종사하고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여성 농업인으로 만25세 이상~만65세인 자와 결혼한 여성농업인으로 만20세 이상~만24세인 자로서 상기 지원 대상에 적합한

자(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여성 결혼이민자는 1년 이상 농촌지역거주하고, 5ha미만 농지소유,농업의 겸업과 사업자 등록증이 없는 경우 등 상기 지원조건을 갖춘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상농업인의 배우자임을 확인하여 지원 가능)면 가능하다.

이 지원사업 대상자로 확정되면, 농협은행을 통해 카드를 발급받고, 1인당 연간 12만원(자부담 2만원 포함) 한도 내에서 관광여행사, 사진관, 피부미용원, 미용실, 스포츠용품, 목욕탕, 서점, 화원, 영화관, 화장품점 등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오는 4월부터 카드 발급이 실시될 예정이다.

신청은 읍면사무소에 내방접수, 자세한 사항은 350-5418로 문의하면 된다. /장수=고관호 기자

지역 소식통

무주군, 유기질 비료 93만포 지원

무주군이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해 3,993농가에 유기질비료 93만 포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총 15억여 원이 투입되며 국비 배정 부족분에 대한 4만여 포는 군비로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비료는 유기질비료 3종(혼합유박, 혼합유기, 유기복합)과 부산물비료 2종(가축분퇴비, 퇴비)이며 가격은 비중에 따라 가축 분 퇴비가 3,800원, 유기질비료가 8,000원 대다.

군은 1포(20kg)당 2,000원에서 1,200원까지 차등 지원하며 농사철이 시작되기 전 지역농협을 통해 공급을 완료할 방침이다.

하지만 공급 희망 시기에 따라 공급물량에 대한 사업포기 의사(5월 말 & 9월 말까지) 없이 수령하지 않으면 다음년도 확정 물량의 50% 이내에서만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 /무주=전문선 기자

‘무주 세계태권도대회 성공 개최 협력하자’

무주경찰서, 군 지역치안협의회 정기회 개최

무주경찰서는 27일 경찰서 회의실에서 무주군수 황정수, 무주군의회장, 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전북도의원 등 협의회 위원 14명이 참석한 가운데 무주군 지역치안협의회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이 날 회의는 군민과 함께하는 따뜻하고 믿음직한 경찰 구현과 6월에 열리는 무주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공동으로 노력하고자 마련됐다.

이번 경찰이 추진하는 범사회적 협력을 바탕으로 지역주민을 더욱 안전하게 보호하고 세계태권도 선수권대회가 안전하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지역 맞춤형 안전협력팀 운용과 노인 교통안전사고 예방 △테러 대응역량 강화로 확고한 안전 유지를 함과 동시에 지역 주민과의 치안파트너십 강화로 학교주변 안전활동 전개 △치안 이미지 향상을 위한 반디풀 캐리터 제작 활용 방안 등 지역특성에 맞는 다양한 맞춤형 치안 특별 시책을



무주경찰서는 27일 황정수 군수, 군의회장, 교육지원청교육장, 도의원 등 협의회 위원 14명이 참석한 가운데 무주군 지역치안협의회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발굴하고 추진방향을 위원들 간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노영민 서장은 "무주경찰은 아동과 노인이 안전하고 무주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가 최상의 상태에서 진행될 수 있도록 가용인력을 총동원, 가시적 순찰활동 강화하는 등 체계안전을 높이는 데 주력할 것이다"며 "노인 교통사고예방을 위해 모든 방안을 강구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황정수 무주군수를 비롯한 참석 위원들은 "무주서 안전협력팀과 함께하는 지역공동체 안전활동 등 경찰이 특별 치안대책을 세워 노력하는 모습에 안심이 된다"며 "관련 예산 편성뿐 아니라, 무주세계태권도대회도 안전협력팀 운용 등에 대해 보다 많은 군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하는 등 적극적인 협조를 하겠다"고 약속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진안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우수기관' 선정

진안군은 27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실시한 '2017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최종성과 보고회'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전국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190개를 대상으로 14개 지표

와 38개 항목을 정해 센터의 운영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정량·정성 평가로 이뤄졌다.

또한 센터의 운영 관리 적절성 여부, 현장평가(6개 지표, 13개 항목) 등 록 급식소 대상 만족도조사 등을 종합평가한 결과다.

진안군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식약처의 가이드라인에 따른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사업운영, 어린이급식소의 급식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해 왔다.

특히 시설 당 연간 6회 이상 위생·안전·영양관리 방문지도, 급식소 실태조사, 어린이 교육, 조리종사자·보육교사 대상 위생·영양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다. /진안=우태만 기자

진안군, 지하수 방치공 복구 나서

진안군은 관내 지하수 오염방지 등 청정 지하자원 보호를 위해 지하수 방치공 찾기에 나섰다.

지하수 방치공은 개발·이용 과정에서 원상복구 없이 방치돼 정화되지 않은 빗물, 오염물질 등의 유입으로 지하수 오염이 우려되는 곳이다.

군은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관내 지하수 환경현황조사를 마쳤으며, 그 결과 방치공 35개소를 찾았다.

이에 따라 35개소에 대해 소유주를 찾아 방치공의 재사용이나 폐공을 유도하며, 소유주가 확인되지 않은 방치공을 대상으로 직접 복원사업을 할 계획이다.

군은 방치공을 완벽하게 복구하기



위해 2,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으며 이 외의 방치공은 지하수지열협회의 '방치공 복원사업(국비)'을 신청하거나 '보조관측망'으로 재활용할 계획이다. /진안=우태만 기자

박성일 완주군수, 소양면 연초방문

박성일 완주군수가 주민자치센터 준공을 필두로, 앞으로 소양면의 미래 100년을 준비하는데 적극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박성일 군수는 27일 소양면을 방문한 자리에서 "소양면은 완주군 발전의 중심지로 그 역할을 충실히 해왔다"며 "향후 급격한 현안을 차질없이 추진, 소양면의 미래 100년을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 군수는 우선 78억원을 투입한 소양면 주민자치센터가 올 10월에 준공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응지전투 성역화의 차질 없는

추진과 함께, 80세대 규모의 마을 정비형 공공주택사업과 소양 근린공원 조성 등을 약속했다.

아울러 조경수 및 묘목 거점유통단지 조성,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공모 등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소양면 연초방문에서 주민들의 신청사 앞 도로 확포장 및 신호등 설치, 유해 야생동물 수렵장의 지속적 운영, 송파광지 왕벚꽃나무 수종 갱신 등을 요청했다.

박 군수는 주민과의 대화 이후 즉결 및 산태경로당을 찾아 의견수렴에 나서기도 했다. /원주=이종복 기자

무주군, 농기계 주말 안전교육 중

무주군이 농기계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무주군 농업기술센터 농업기계 관련 공무원들이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10:00~17:00) 농업기술센터 임대사업장과 6개 읍면 마을회관, 농가포장 등지에서 진행한다.

교육기종은 소형 트랙터와 굴삭기, 관리기 그리고 현재 무주군에서 임대해 사용하고 있는 농기계들로, 기종별 운전조작 실습(이론과 실습, 점검과 정비)을 비롯해 농기계 안전수칙과 도로교통법규 설명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내용들을 공유하며 주행용 기종에 안전표지판을 부착하는 제도에 대한 안내도 병행한다. /무주=전문선 기자

장수군, 농업·농촌 식품산업 정책심의회 개최

장수군은 27일 한영희 부군수를 비롯한 심의위원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8년도 농림축산 식품사업 예산신청 심의를 위한 '장수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심의회에서는 2018년도 농림·축산 식품사업 분야별로 농정분야 631억원, 축산분야 135억원, 산림분야 82억원, 건설분야 110억원, 농업기술분야 87억원 등 총 58개사업에 대해 1,045억원의 예산을 심의·의결했다.

한영희 부군수는 "올해도 국·도비 예산 확보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과 함께 도와 유기적인 협조로 중앙부처를 방문, 2018년 농림·축산 식품사업 예산이 최대한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전라북도 2017 무주 WTF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

세계는 무주태권도원으로, 태권도로 하나되는 지구촌!

2017 전북 무주 WTF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6.24-30 (7일간)